

우리 나라 에이즈 실태와 지원방안

2003년 한해동안 전 세계에서 5백만명이 신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여전히 에이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콘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지상파 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극적 관심을 촉구하여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홍순구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 과장

여전히 부족한 에이즈에 대한 인식 일반인들은 흔히 '에이즈 감염인' 과 '에이즈 환자' 라는 용어를 혼동한다. HIV 감염인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외관상 건강해 보이나 타인에게 전파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에이즈 환자' 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인 'AIDS' 를 일컫는 용어로서 HIV에 감염되어 면역기능의 저하로 폐렴, 수막염, 암의 일종인 카포시육종 등이 발생한 환자를 의미한다.

에이즈는 다른 질병과 달리 확실한 감염 경로는 감염된 동·이성과의 성접촉,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사용, 감염된 주사기 또는 바늘의 사용, 감염된 임산부로부터의 모자 수직감염 등이다.

음식물 같이먹기, 악수하기, 모기·벌레, 기침이나 재채기, 화장실·대중 목욕탕의 공동사용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HIV는

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 등을 통하여 전파되며, 일상적인 생활(공기, 물)에서는 전파되지 않는다.

2003년, 전세계 5백만명이 신규 감염 1981년 '에이즈' 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고 난 후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증가하여 유엔에이즈기구(UNAIDS)의 보고에 의하면 2003년말 현재 약 4천만 명의 감염인이 지구상에 살고 있으며 2003년 한 해 동안만 약 5백만 명의 신규 감염인이 발생하였고, 약 3백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5년에 처음으로 HIV 감염인이 발견되었고, 2004년 9월말 현재 전체 감염인 수가 2,994명이며, 금년들어 하루 평균 1.7명꼴로 HIV/AIDS 신규 감염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 번째 감염인이 발견된 지 10년후인 1995년 한 해 동안 보고된 신규 감염인 수는 100명 수준이

었으며, 5년 후인 2000년에는 200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 후 1년에 거의 100명씩 증가하여 2001년 327명, 2002년 398명, 2003년 534명, 그리고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455명. 이러한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에이즈의 위협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에이즈의 감염경로는 확실하며, 올해 1월부터 9월말 현재 신규 감염인 중 감염경로가 확인된 감염인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성접촉—특히 불특정다수와의 성관계를 피하고, 콘돔을 바르게 항상 사용한다면 에이즈는 예방할 수 있다.

콘돔으로 에이즈 바로 알리기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에이즈 감염현황에 근거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지상파 광고에 “콘돔”이라는 소재를 등장시켰다. 광고는 미션임파서블이라는 친근한 영화음악을 배경으로 코믹첩보 영화를 연상시키는 듯한 스토리로 전개된다. 광고는 “더이상 우리나라도 에이즈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으며, 더불어 “에이즈 예방은 콘돔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에이즈 예방의 실질적인 수단인 콘돔을 소개하고 있다. 에이즈예방을 위한 광고—즉 콘돔사용촉진 광고는 성인 남성이 즐겨찾는 채널 YTN, KBS 스포츠 채널, 그리고 이동이 잦은 수도권 시내버스, 공항버스, LCD 모니터, 지하철 전동차, 새마을호, KTX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많은 이들에게 홍보될 예정이다.

그리고 “콘돔”과 “에이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칫 콘돔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콘돔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콘돔의 새이름에 대한 공모를 10월 한달 간 진행하였고, 19,300여 건이 응모되어, 7,000여개 작품 중에서 “애플”이 콘돔의 새이름으로 최종선택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12월 1일 제17회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12월을 “에이즈 검사의 달”로 정함으로써 에이즈 검사를 부끄러운 행위에 대한 확인이 아닌, 받으면 편안해질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보건소를 통해 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검사(검사번호, 가명 사용하여 검사하고, 이를 통해 확인함)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각종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감염인에 대한 정부지원 즉, 진료비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재활서비스 강화, 말기 환자에 대한 요양, 감염인 인권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상담, 치료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정확한 지식과 관심으로 예방

이미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를 통해 에이즈는 더 이상 몇몇 외국국가들의 문제, 우리 사회에 특별한 몇몇 소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함께 나누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국가의 HIV 감염인/AIDS 환자 지원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생활화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국가 에이즈 예방활동에 지속적, 적극적 관심을 보여주고 동참해 준다면, 우리나라는 에이즈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